

성인기와 노년기별 기혼남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과 우울, 자아존중감의 관계

김 보 은
(고려대학교)

조 영 일
(성신여자대학교)

유 지 영
(중앙치매센터)

최 은 실
(고려대학교)

김 혜 영*
(고려대학교)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이라는 이분법적 성역할의 틀이 없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일을 하는 노년기 남성이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성인기와 노년기 모두에게 문제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9차년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인기와 노년기 기혼남성근로자 집단 각각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자아존중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였고, 성인기의 경우는 부분 매개효과를, 노년기의 경우는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에서 각각 경로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는 기혼 남성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과 연령대를 고려한 개입 방안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주요용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우울, 자아존중감, 기혼남성근로자

* 교신저자: 김혜영, 고려대학교(kimhaey@korea.ac.kr)

■ 투고일: 2016.1.21 ■ 수정일: 2016.3.11 ■ 게재확정일: 2016.3.18

I. 서론

현대 사회는 신체적 건강을 넘어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수준 향상을 누리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비롯해 정신 건강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울은 외롭거나, 무가치하고, 희망이 없고, 행복과 기쁨이 없는 느낌을 일컫는데(Mirowsky & Ross, 1986, p.24), 흔히 '마음의 감가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OECD 가입국 중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우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노용환, 이상영, 2013, pp.7-16).

현대인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며 기본적인 삶의 터전으로 가정을 둔다. 일은 자신의 정체감,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줄 뿐 아니라 개인의 재능, 능력, 지식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김재엽, 최수찬, 최보람, 김혜영, 2009, p.52). 또한 가정은 가족의 물질적·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조미황, 임정빈, 1997, p.370)일 뿐 아니라 각자가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다.

과거에 직장은 남성에게, 가정은 여성에게 각각 중요한 활동 영역이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분업에서 벗어나 여성의 사회참여와 남성의 가사참여가 증가하면서 직장과 가정은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 중요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약 절반 정도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통계청, 2015), 2014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42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49.2% 증가했다(고용노동부, 2015). 즉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노동자'라는 이분법적 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이다.

남녀 구분 없이 직장과 가정이 모두 중요해짐에 따라 기혼자들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4)이 전국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직장인의 경력 성공 인식 조사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69.2%가 일과 가정 양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중요시되면서 육아휴직(김진욱, 권진, 2015, p.270), 유연근무제(홍승아, 2012, p.137)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혼자들은 절대적인 시간 부족, 직장생활과 가사 및 양육 병행으로 인한 역할 부담 등의 이유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기혼 남성의 경우 기존의 생계부양자적 역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영역이라고만 여겼던 가사노동 및 양육에 대한 새로운 부담감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채화영, 이기영(2013, p.498)의 맞벌이 남성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연구는 남성들이 경제적 불안과 장시간의 근로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생계부양자에 더해 친구 같은 아버지로서의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심리학에서는 남성의 성역할이 남성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상태를 '성역할 갈등'이라 일컫고 이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이 성역할 갈등의 하위 요인으로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포함되어 있다. 성역할 갈등에서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란 과로,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는 일, 학교, 가족 관계의 불균형을 이 야기한다(O'Neil, 2008b, p.367). Theodore와 Lloyd(2000, p.1037)는 이 성역할 갈등이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성역할 갈등의 요인들 중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의 경우 노년기 남성에게 비해 성인기 남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고령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성인기뿐 아니라 노년기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28.9%, 약 1/3 정도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4). 노년기에는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 수 있으나, 부부 중심의 생활을 통해 가사노동 부담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노년기 남성은 남성과 여성의 활동 영역을 명확히 구분한 전통적인 남성 성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 노인들은 전통적인 남성 성역할인 생계부양자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와 위배되는 가사노동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불안, 약물의존장애와 양적으로 관련이 있었으며(Frone, 2000, p.892), 좋지 못한 신체적 건강, 알코올남용과도 양적인 관계가 있었다(Frone, Russell, & Cooper, 1997b, p.330). 또한 많은 연구들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우울 사이의 양적인 관계를 확인하였다(Netemeyer, Boles, & McMurrian, 1996

p.402; Frone, Russell, & Barnes, 1996, p.66; Frone, Russell, & Cooper, 1992a, p.74; Grzywacz & Bass, 2003, p.256).

기존의 개인적 특성과 우울 사이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들에서는 우울의 매개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검증해왔다. 자아존중감은 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려고 한다(Pyszczynski, Greenberg, Solomon, Arndt, & Schimel, 2004, p.436). 즉,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사고나 태도 속에 표현되는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이다. 특히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살, 우울과 같은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이다(정익중, 2007, p.128).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고 이는 우울을 유발하는 소질이 될 수 있다(Sowislo & Orth, 2013, p.216).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울 경우 가족 또는 직장과 관련된 요구와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고(Chandola et al., 2004, p.885), 이는 곧 자아존중감 하락으로 이어져 우울을 유발할 수 있다. 김지현과 최희철(2007)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포함한 성역할 갈등에 대한 연구에서 성역할 갈등은 우울에 직접효과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위 연구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의 특성이 다를 수 있는 노년기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혼남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남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시간 부족, 과도한 체력 소모를 통해 일어날 수도 있으나 기존의 전통적 성역할에 위배되는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함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일-가정 양립의 환경 및 성역할 특성이 다를 것이라 생각되는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 각각에서 이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남성 또한 가사노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가정 갈등'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일-가정 갈등'이란 일과 가족 영역에서 상호 양립할 수 없는 역할 간 갈등의 형태를 말한다(Greenhaus & Buetell, 1985, p.77).

Pleck(1977, p.423)은 비대칭성 가설을 통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서 일과 가족의 영역 사이에 비대칭적으로 침투하기 쉬운(permeable) 경계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이 비대칭에서 남자의 경우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가족 내 역할에 더 침범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성별 노동 분업의 결과로서 남자는 직업역할을 중심으로 생활하여 가정보다는 일을 중요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해 Gutek, Searle와 Klepa(1991, p.561)는 합리적인 관점과 성역할 기대 관점의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합리적인 관점은 일 또는 가정에서의 역할에 쏟는 절대적인 시간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에 쏟는 시간이 가정에 쏟는 시간보다 많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성역할 기대 관점은 남성은 가정, 여성은 일과 같이 반대되는 성역할을 이행할 때 더 많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남자는 기존의 성역할 영역이던 직장이 아니라 가족 영역에서 양육 및 가사노동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경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성인기 기혼남성의 경우 가정에서 남편이라는 배우자 역할 뿐 아니라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그러나 김낙홍(2011, p.87)은 기혼 남성의 많은 업무량과 늦은 귀가 등 직장 생활로 인한 아버지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밝혔다. 통계청(2014)의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 남성들은 평일 가사노동에 47분, 수입노동에 4시간 45분을 소요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 분배상으로 보았을 때조차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르면, 기존의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는 것이 곧 가정에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여기는 측면도 성인기 기혼남성에게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김진희, 2005, p.119).

그러나 조성은, 정지영, 윤소영(2007, p.137)에 따르면 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남녀의 성역할 변화에 따라 남성 또한 양성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별로 성역할에 대한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노년기 기혼남성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모두 성장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부부 중심의 생활과 사회의 평등적인 성역할 요구, 배우자의 질병 및 상실 등에 의해 노년기 기혼남성근로자에게 가사노동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김영혜(2004, p.3)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노인들은 “가부장적인 가족 의식과 엄격한 성역할분리의 이데올로기를 깊이 내면화한 세대” 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남성노인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과 배치된 가사노동분담은 오히려 그들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을 낮게 했다. 그러나 남성노인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2.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자아존중감, 우울

선행연구들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신체 및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Frone, Russell와 Bames(1996, p.66)의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좋지 못한 신체건강, 과음 등과 양의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이를 중단적으로 본 연구(Frone, Russell, & Cooper, 1997b, p.330)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왔으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고혈압 발생에도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우울과도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네덜란드인을 대상으로 한 Geurts, Kompier, Roxburgh와 Houtman(2003, p.552)의 연구에서는 업무량이 우울을 포함한 심리적인 불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매개변수로 역할을 하며 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 Schieman, McBrier와 Van Gundy(2003, p.151)의 연구에서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불안, 우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김현순, 김병석, 2007, p.31)와 완벽주의(하정희, 2012, p.716) 등 개인적인 특성과 우울 사이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많이 연구되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일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역할들을 본인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김지현과 최희철(2007, p.155)의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한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성역할 갈등은 우울에 대하여 직접효과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까지 보였다.

성역할 갈등이란 O'Neil(1981a, p.203)의 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성역할이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결과와 영향을 줄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한다. O'Neil(2008b, p.367)은 남성 성역할 갈등의 하위 요인 네 가지 중 하나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제시했다. 가족의 경제적인 부양책임은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강조되는 성역할이므로(백진아, 2009, p.168) 성역할에 따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신과 실제 자신의 모습의 차이로 비롯된 부정적인 결과로서 성역할 갈등이 일어나 기혼 남성 근로자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남성근로자들에게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성역할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낮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우울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Good & Mintz, 1990, p.19; Sharpe & Heppner, 1991, p.328).

성인기 남성근로자의 경우 과중한 업무와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 부족, 체력 소모 등의 측면과 동시에 남성임에도 성역할에 반하는 가사노동에 참여한다는 데서 비롯된 성역할 갈등 측면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공존할 것이다. 이에 반해 노년기 근로자의 경우 비슷한 나이의 대부분이 은퇴를 경험하는 시기로 본인 또한 일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고, 자녀도 성장해 떠나보낸 경우가 많아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감도 다소 줄어들 시기이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현 세대의 노인은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세대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주로 성역할 갈등에서 비롯될 것이다. 즉 성인기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성역할 갈등 측면에서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노년기의 경우는 성역할 갈등 측면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클 것이므로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해보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우울은 밀접한 관계

가 있으며, 이 때 자아존중감은 매개변인들 중 하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자아존중감, 우울의 관계를 확인하고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의 차이를 봄으로써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및 우울과 관련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적 논거에 근거하여, 기혼남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 각각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자아존중감, 우울의 구조적 관계를 잘 설명하는 모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기혼남성근로자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1-1. 기혼남성근로자 성인기 집단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1-2. 기혼남성근로자 노년기 집단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 각각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우울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2-1. 기혼남성근로자 성인기 집단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우울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2-2. 기혼남성근로자 노년기 집단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우울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가?

IV.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의 9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했다. 한국복지패널은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하고 있어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패널조사이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국민실태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상인 일반 가구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를 구분하여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최종 7072가구가 추출되었다. 9차년도 데이터는 총 7390가구에 대해 조사하였고, 본 연구는 성인기 2022명, 노년기 1167명으로 총 3189명의 기혼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인 기혼 남성 근로자는 조사 당시 기혼이며, 무급 가족 종사자를 제외한 근로자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성인기 집단의 연령 범위는 26-59세이며, 노년기 집단의 연령 범위는 60-93세이다.

2. 측정도구

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본 연구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복지패널 설문조사 내 성역할에 관한 문항 8개 중 일과 가족 생활 양립의 어려움 정도를 나타낸 ‘가정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3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 계수는 0.643였다.

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Self-Esteem Scale을 사용해 측정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응답 범위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번역상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었을 뿐 아니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음의 요인부하량 값을 나타냈던 8번 문항('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을 제외하여 총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최수미, 조영일, 2013, p.576). 긍정적 문항이 5개, 부정적 문항이 4개로 부정적 문항은 역코딩한 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0.789였다.

다. 우울

우울 척도는 CES-D 척도 11문항을(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을 사용하였다. CES-D는 일반적인 인구집단에서 우울 징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로(Radloff, 1977, p.385), 본 연구에서는 전경규와 이민규(1992, p.66)에 의해 개발된 한국판 척도 중 총 11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조사 시점 기준으로 지난 1주일 간 우울과 관련된 심리상태를 느낀 횟수를 물었다. 전체 문항은 (1) 식욕이 없음, (2) 비교적 잘 지냄, (3) 상당히 우울함, (4)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짐, (5) 잠을 설침, (6) 외로움, (7) 불만없이 생활함, (8)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이 느낌, (9) 마음이 슬픔,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이 느낌, (11)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과 같다. 응답은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로 이루어졌다. 분석 시에는 '비교적 잘 지냈다'와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의 2문항을 역코딩한 후 0점에서 3점까지 리코딩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0.768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복지패널 데이터는 저소득가구를 과포집하였으므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는 표본의 대표성을 위하여 표준화가중치를 적용한다. 가중치 산정방법은 한국복지패널 사용자 지침서(한국복지패널, 2015)를 따랐다.

가. 문항꾸러미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 p.22)의 권유에 따라 단일한 차원을 측정하는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네 개의 관측변수(문항꾸러미)로 묶었다. 이는 개별 문항에 대한 반응이 다변량 정규성 가정을 위반하기 쉽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추정할 모수(parameter)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며, 개별 문항의 독특한 특성에 의해 결과가 왜곡되는 단점을 줄일 수 있어 모형의 적합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이 높은 순서대로 배분해 4개의 문항꾸러미를 구성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6, 9번과 5, 3번, 1, 5번, 2, 10번 문항을, 우울의 경우 3, 4, 7번과 1, 8, 9번, 5, 6, 10번, 2, 11번을 각각 묶어 합해 문항꾸러미를 구성하였다.

나. 분석단계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프로그램으로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아존중감, 우울의 실태를 확인하였으며,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매개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Anderson과 Gerbing(1988, p.411)이 제시한 2 단계 접근방법에 따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각 경로가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Mplus 7.0 프로그램으로 실시하였고, 모형의 추정방법으로는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 MLR(Robust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V. 연구결과

1. 변수들의 특성

표 1. 집단별 주요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범위)	성인기(n=2022)		노년기(n=1167)		전체(n=3189)		t
	평균	편차	평균	편차	평균	편차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3~15점)	6.38	2.007	6.45	2.150	6.40	2.039	-.733
자아존중감(4~36점)	29.68	3.276	28.35	3.609	29.39	3.394	9.135***
우울(0~33점)	2.03	2.952	2.81	3.411	2.20	3.073	-5.694***

***<0.001

<표 1>에 주요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전체 기혼남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3~15점에서 분포하고, 평균은 6.40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13~36점에서 분포하며 평균 29.39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울은 0~25점에서 분포하며 평균 2.20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기혼남성 근로자의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간 주요변수 값을 비교하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성인기와 노년기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자아존중감은 성인기가 노년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우울은 노년기가 성인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2. 주요변수간 상관관계

구분	1	2	3
1.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2. 자아존중감		-.311**	-
3. 우울		.290**	-.488**

**p<.01

주요변수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주요변수간 상관계수가 모두 유의하였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자아존중

감과는 부적(-) 상관을, 우울과는 양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았으며, 우울은 높아졌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아졌다.

2. 확인적 요인분석

각 집단별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적합도를 RMSEA, CFI, TLI, SRMR 네 개의 지표를 사용해 판단하였다. CFI, TLI는 0인 경우 전혀 적합하지 않고, 1인 경우 완전히 적합한 것으로 해석하는데, 일반적으로 0.90이 넘으면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한다. RMSEA와 SRMR은 0.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0.08 이하이면 연구에서 보통의 적합도로 해석된다.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성인기 집단의 경우 CFI=0.944, TLI=0.925, RMSEA=0.048(90% 신뢰구간 : [0.042, 0.054]), SRMR=0.032로, 노년기 집단의 경우 CFI=0.946, TLI=0.928, RMSEA=0.042(90% 신뢰구간 : [0.034, 0.051]), SRMR=0.035로 나와 두 집단 모두 모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성인기			노년기		
		비표준화 요인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요인계수	비표준화 요인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요인계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어려움1	1.000***		0.719	1.000***		0.677
	어려움2	1.029***	0.069	0.564	1.226***	0.115	0.648
	어려움3	0.658***	0.051	0.594	0.848***	0.081	0.668
자아존중감	자존감1	1.000***		0.752	1.000***		0.763
	자존감2	1.307***	0.068	0.750	1.305***	0.093	0.786
	자존감3	1.199***	0.070	0.642	0.965***	0.074	0.598
	자존감4	0.974***	0.051	0.662	0.703***	0.058	0.584
우울	우울1	1.000***		0.730	1.000***		0.728
	우울2	0.460***	0.049	0.663	0.544***	0.065	0.718
	우울3	0.568***	0.051	0.714	0.475***	0.057	0.611
	우울4	0.534***	0.031	0.688	0.596***	0.038	0.670

***p<.001

각 요인들을 구성하는 설문문항들과 그 문항들의 요인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준화된 요인적재치는 절대값이 0.30보다 클 때 약간 유의, 0.40보다 클 때 유의, 0.50보다 클 때 매우 유의하다고 간주된다(신철호, 최복수, 이상경, 2006, p.282). 본 연구 모형에서는 성인기와 노년기 두 집단의 표준화 요인계수 모두 0.40보다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모형 검증

표 4. 기혼남성근로자의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별 구조모델 회귀계수

경로	성인기			노년기		
	b	β	S.E.	b	β	S.E.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우울	0.376***	0.221	0.075	0.073	0.037	0.113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자아존중감	-0.405***	-0.418	0.053	-0.581***	-0.477	0.079
자아존중감 → 우울	-0.902***	-0.514	0.095	-0.934***	-0.576	0.138

***p<.001

구조모형의 회귀계수와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관련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성인기의 경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클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울이 높아졌으나($\beta=0.376, p<.001$) 노년기의 경우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p=.519$). 그러나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 모두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아졌고($p<.001$),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은 유의하게 낮아졌다($p<.001$).

표 5. 성인기와 노년기 기혼남성근로자의 집단별 구조모델에 대한 효과분해(표준화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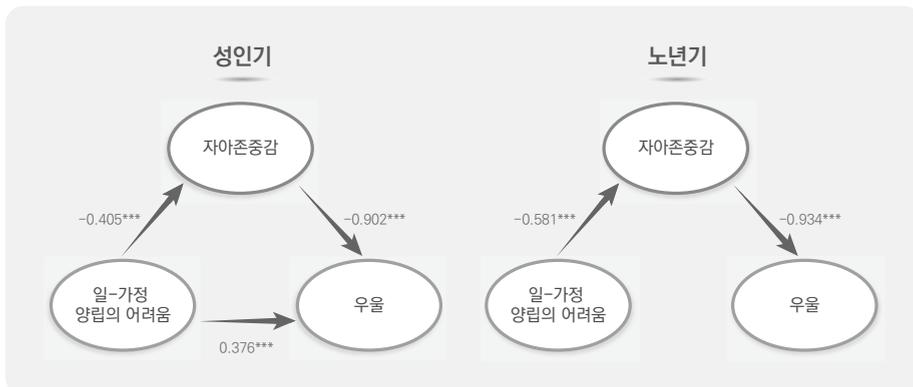
경로	성인기			노년기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우울	0.376***	0.365***	0.742	0.073	0.543***	0.615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자아존중감	-0.405***	-	-0.405	-0.581***	-	-0.581
자아존중감 → 우울	-0.902**	-	-0.902	-0.934***	-	-0.934

***p<.001

<표 5>의 모형에서 간접효과와 관련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성인기 집단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우울의 관계는 자아존중감에 의해 부분 매개되었고(간접효과의 크기 = 0.365, p<.001), 노년기 집단에서는 완전 매개되었다(간접효과의 크기 = 0.543, p<.001). 따라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기의 경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노년기의 경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별 최종 모형



***p<.001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이 성인기, 노년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기와 노년기 기혼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 두 집단에서 모두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중년남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포함한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던 연구(김지현, 최희철, 2007, p.155)를 일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혼 남성을 성인기와 노년기 집단으로 나누어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남녀를 함께 본 선행 연구결과들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Frone, Russell, & Barnes, 1996, p.66; Frone, Russell, & Cooper, 1997b, p.330; Geurts, Kompier, Roxburgh, & Houtman, 2003, p.552; Schieman, McBrier, & Gundy, 2003, p.151).

이와 같은 결과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우울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더욱 활발한 정책적·제도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가족친화제도이용이 아버지 역할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본 결과 70% 이상이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문은영, 서영주, 2011, p.7). 그러나 기혼남성근로자들은 기업의 열악한 환경이나 인사고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가족친화제도의 이용을 어려워했다. 채회영과 이기영(2013, p.509)도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활용이 육아기 맞벌이 남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전략임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육아기 맞벌이 남성들은 경제적 불안과 과도한 스트레스, 잦은 회식 등으로 인해 아버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어려워했다. 따라서 남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자발적인 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혼남성근로자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이는 직장과 가정에서 각각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경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기 어려워 자아존중감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우울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맞지 않는 양육 및 가사노동에 참여함에 따라 성역할 갈등이 발생하고,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과 실제 모습의 차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 또한 우울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성의 일-가정 양립 위한 활발한 정책 및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과 동시에 남성 또한 스스로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Huang, Zhu, Zheng, Zhang(2012, p.1012)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유형 중 남성성뿐 아니라 여성성을 모두 갖춘 양성성을 가진 사람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다. 이는 Bem(1974, p.155)의 양성성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로 이론에서는 생물학적 성에 일치하는 성역할을 획득한 사람에 비해, 양성성의 성역할을 모두 획득한 양성적 개인이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심리적으로 더 건강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기혼남성근로자가 전통적인 성역할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양성성을 추구한다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비롯되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성인기, 노년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인기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서 우울로 가는 직-간접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년기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 중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간접 경로만이 유의하였다. 즉, 성인기와 노년기에 따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다른 경로로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성인기의 경우 직장생활과 양육,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일-가정 양립의 물리적인 어려움과 전통적 남성 성역할에 배치되는 가사노동 등에 참여해야 한다는 일-가정 양립의 정신적인 어려움이 공존할 것이지만, 노년기의 경우에는 자녀가 모두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일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어 일-가정 양립의 물리적인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년기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부분 성역할에 배치되는 가사노동에 참여한다는 일-가정 양립의 정신적인 어려움일 것이다. 김영혜(2004, p.25)의 연구에서도 노년기 남성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고,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 정도가 일치하지 않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혼남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따른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인기와 노년기에 서로 다른

해결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추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개입시에 연령에 따른 고려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인기의 경우 일과 병행하며 실질적으로 가족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반면 노년기의 경우 기혼남성근로자 본인이 가사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양성성을 획득하고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남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발생 시 개입이 필요하다는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자아존중감 하락, 우울 증가와 같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기혼남성의 자아존중감 하락과 우울 증가는 그 문제를 겪는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생산가능인구인 기혼남성들의 좋지 않은 정신건강은 기업 및 산업장에서는 낮은 생산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기혼남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따른 정신건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남성의 가정 내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남성 스스로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남성이 일-가정 양립 정책을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우울의 인과관계 설정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종단 자료를 통해 선후 관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우울의 인과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차자료 사용의 한계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성역할 갈등, 시간 부족 및 과중한 노동 등으로 비롯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을 살펴보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체를 묻기보다는 다양한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보은은 현재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 BK21플러스 인간생명-사회환경 상호작용 융합사업단 소속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에서 석사학위 과정 중이다. 세부적으로 보건통계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보건통계, 건강형평성,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다.
(E-mail: kimbe43@naver.com)

조영일은 미국 UC Davis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구조방정식모형, 중단자료분석, 연구방법론이며 현재 PTSD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young.il.cho@gmail.com)

유지영은 미국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에서 노년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중앙치매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정신보건, 복지, 정책이며, 현재 성별에 따른 노인정신질환의 위험요인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jiyoun.Lyu001@umb.edu)

최은실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에서 박사과정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보건통계, 구강보건, 구강건강과 삶의 질 이다.
(E-mail: silvershin@korea.com)

김혜영은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로 매개 모형 관련 이론, 다수준 분석 및 구조방정식모형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kimhaey@korea.ac.kr)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5). **아빠를 위한 남성육아휴직 가이드북**. 세종: 고용노동부.
- 김낙홍. (2011). 바람직한 아버지의 역할과 역할수행의 어려움,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고찰.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2), pp.79-98.
- 김영혜. (2004). 노년기 젠더관계와 심리적 복지감. **한국인구학**, 27(1), pp.1-30.
- 김재엽, 최수찬, 최보라, 김혜영. (2009). 기혼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장-가정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7(10), pp.51-61.
- 김지현, 최희철. (2007). 남성 성역할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도구성과 성역할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pp.145-160.
- 김진욱, 권진. (2015).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정책**, 22(3), pp.265-302.
- 김진희. (2005). 남성의 아버지 역할 수행과 유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pp.113-123.
- 김현순, 김병석. (2007). 연구논문: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27(1), pp.23-37.
- 노용환, 이상영. (2013).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 pp.7-18.
- 문은영, 서영주. (2011). 서울시 30, 40 대 자녀양육 남성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 양립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이슈분석**, 2011-6, pp.1-14.
- 백진아. (2009). 기혼 남성의 부성과 가족 경험. **현상과인식**, 33(4), pp.163-186.
- 신철호, 최복수, 이상경. (2006). 호텔부문: 호텔 종사원의 직무 및 직장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직무특성 및 직무만족 요인을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5(2), pp.275-290.
- 전점규, 이민규. (1992). 한국판 CES-D 개발 연구 1.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pp.65-76.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등. (2014). 2014년 노인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pp.127-166.

- 조미황, 임정빈. (1997).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pp.369-386.
- 조성은, 정지영, 윤소영. (2007). 남성의 시장노동과 가사노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pp.129-140.
- 채화영, 이기영. (2013). 육아기 맞벌이 남성의 일, 가정 양립 경험.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5), pp.497-511.
- 최수미, 조영일. (2013). 부정문항이 포함된 척도의 요인구조 및 방법효과 검증과 남녀 간의 차이 비교: Rosenberg 자기존중감 척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3), pp.571-589.
- 통계청. (2015). 201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4). 생활시간조사. 대전: 통계청.
- 하정희. (2012).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이 자기구실 만들기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2), pp.705-72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5). 9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 사용자지침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직장인의 성공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홍승아. (2012). 일-가정양립의 관점에서 본 유연근무제: 전략적 선택인가, 젠더 함정인가?. *가족과 문화*, 24, pp.135-165.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pp.411-423.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2), pp.155-162.
- Chandola, T., Martikainen, P., Bartley, M., Lahelma, E., Marmot, M., Michikazu, S., Nasermoaddeli, A., & Kagamimori, S. (2004). Does conflict between home and work explain the effect of multiple roles on mental health? A comparative study of Finland, Japan, and the UK.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3(4), pp.884-893.

- Frone, M. R., Russell, M., & Barnes, G. M. (1996). Work - family conflict, gender, and health-related outcomes: A study of employed parents in two community samples.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1*(1), pp.57-69.
-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 (1992a).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testing a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1), pp.65-78.
-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 (1997b). Relation of work - family conflict to health outcomes: A four year longitudinal study of employed parent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0*(4), pp.325-335.
- Frone, M. R. (2000). Work - family conflict and employee psychiatric disorders: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6), pp.888-895.
- Geurts, S. A., Kompier, M. A., Roxburgh, S., & Houtman, I. L. (2003). Does work-home interference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load and well-be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3*(3), pp.532-559.
- Good, G. E., & Mintz, L. B. (1990). Gender role conflict and depression in college men: Evidence for compounded risk.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9*(1), pp.17-21.
- Greenhaus, J. H., & Beutell, N. J. (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pp.76-88.
- Grzywacz, J. G., & Bass, B. L. (2003). Work, family, and mental health: testing different models of work family fi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1), pp.248-261.
- Gutek, B. A., Searle, S., & Klepa, L. (1991). Rational versus gender role explanations for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4), pp.560-568.
- Huang, X., Zhu, X. L., Zheng, J., Zhang, L., & Shiomi, K. (2012). Relationships among androgyny, self-esteem, and trait coping style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0*(6), pp.1005-1014.
- Mirowsky, J., & Ross, C. E. (1986). Social pattern of distress. *Annual review of*

sociology, pp.23-45.

- Netemeyer, R. G., Boles, J. S., & McMurrian, R.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work - family conflict and family - work conflict scal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4), pp.400-410.
- O'Neil, J. M. (1981a). Patterns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train: Sexism and fear of femininity in men's lives.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4), pp.203-210.
- O'Neil, J. M. (2008b). Summarizing 25 years of research on men's gender role conflict using the gender role conflict scale new research paradigms and clinical implic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6(3), pp.358-445.
- Pleck, J. H. (1977). The work-family role system. *Social problems*, 24(4), pp.417-427.
- Pyszczynski, T., Greenberg, J., Solomon, S., Arndt, J., & Schimel, J. (2004). Why do people need self-estee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0(3), pp.435-468.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pp.385-401.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pp.18-29.
- Sharpe, M. J., & Heppner, P. P. (1991). Gender role, gender-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3), pp.323-330.
- Schieman, S., McBrier, D. B., & Van Gundy, K. (2003). Home-to-work conflict, work qualities, and emotional distress. *Sociological Forum*, 18(1) pp.137-164.
- Sowislo, J. F., & Orth, U. (2013). Does low self-esteem predict depression and anxiety? A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139(1), pp.213-240.
- Theodore, H., & Lloyd, B. F. (2000). Age and gender role conflict: A cross-sectional study of Australian men. *Sex Roles*, 42(11-12), pp.1027-1042.

Associations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Married Working Men

Kim, Bo Eun
(Korea University)

Cho, Young Il
(Sungshin Women's
Universty)

Lyu, Jiyong
(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Choi, Eunsil
(Korea University)

Kim, Hae Young
(Korea University)

Work-family balance is difficult not only for women but also for married working men because their role in housework child care has become as important as their traditional role as the breadwinner. Also, with the growing number of working elderly men, the challenge of balancing work and family can be a difficult issue for the young and old alik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working men in middle- and old-age groups using separate structural equation models for each. In additio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on the above association was also examined. We used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from the 2014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The result showed that work-family conflict had significant effects on depression among married working men. Self-esteem partial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men, while this association was fully mediated by self-esteem among elderly men. Our findings suggest that active support policy for men's work-family balance is needed, and the intervention strategy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age group differences.

Keywords: Work-family Conflict, Depression, Self-esteem, Married Working Men